

민주당, 재판 종료까지 이재명 징계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말하겠다"며 "어제 기소 이후 여러 논의를 했다. 이 지사는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면서, 당의 단합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계 전화를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말이 있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건데 당의 단합을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는 최고위원간 논의가 있었다며 "이틀(이 지사의 백의종군 선언을)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우리는 한 팀이라는 마음으로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 지사) 재판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사실상 당원권 정지...본인 스스로 결단해”

“김경수·은수미 별개...논의할 생각 없다”

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가 본인의 당원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최고위는 이를 수용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당원권이 오늘부터 유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원권이 사실상 정지되는 것"이라며 "본인 스스로가 당의 '원팀'을 위해, 분열을 막기 위해 정지적으로 크게 결단을 내렸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최고위에서도 수용했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간 찬반에 대해서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여러 논의를 해서 합의에 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리심판원 회부 여부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 재판"이라고 말

을 아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차원의 윤리심판원 회부에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재판 결과를 본 이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윤리위가 열릴 수 있지만 지금은 예단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내법원에 갈지 1심, 2심에 갈지 (모른다)"라며 "윤리심판원은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최고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합구했다. 그는

"(이 지사와)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며 "자꾸 이 지사에 김경수 지사를 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논 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당연직 당무위원 등 당직을 내려놓고 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기소로 논란이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일치 단결하여 국민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민주당, 촛불소명을 소멸할 더 강한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나경원, 국회의장 예방 "중립성 부탁"

문희상 "흠집 잡기·탄축 걸기 그만하길 기대"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중립성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을 만나 "국회가 역할을 하려면 여야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의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일찍이 의장님이 당직을 내려놓으셨으니 정말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시고 일 해주시면, 저희도 협조할 건 확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여당은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가는 책임이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견제하는 것이 주 임무다. 그걸 회피하면 야당도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흠집 잡기, 탄축

죽이기 이런 그만했으면 좋겠다. 차원 높게 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여야가 뭔가 될 거 같다고 기대하고 있다. 기대 한 복판에서 계시다"라고 전했다.

문 의장은 나 원내대표가 "중립성 있게 해달라"고 말하자 "약속하겠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예방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정에서 일시국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을 했고 우리는 당내 의견 수렴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할 사항이 있다 정도로 말했다"라고 전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바른미래당 의원들 '릴레이 단식' 돌입

김관영·오신환 시작 1일 2명씩...민주·한국 답하라"

순하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속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에 나서기로 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개혁에 당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그 일환으로 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소속 의원들도 동조 단식에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이날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하루 2명씩 릴레이 형식으로 단식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현직 지역위원장, 지지자들도 릴레이 단식에 참여한다.

아울러 매일 11시 이3당 의원들이 로터너 홀에 모여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진행된다. 이후 이3당 원내대표들과 수석들이 함께 진행 방향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단식 해제 조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

주당이 분명한 답을 해야 할 시기"라며 "구체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고 일자도 정해야 한다. 의원총회를 통해 각 당의 결의를 모았을 때 실천적 담보력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을 전제로 본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는 방향에 공감하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지는 취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말을 바꾼 게 몇 번인지 세고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며 "이 문제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끌게되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니까 상황을 회피하는 것 이상, 이하로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디테일한 부분은 정계 특위 등에서 추후 논의할 수 있다"라며 "지금 당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건 없이 받는다. 이것은 의원총회 결의 사항이다.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로터너홀 이3당 피켓시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터너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평화당 "민주, 국민·국회 우롱 말고 선거제 합의 이끌어야"

민주평화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더 이상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지 말고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후 청와대 5당 대표회담 등 5당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논평을 통해 "그것이 개혁연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직후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선거제 개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에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선거제 개혁 약속을 파기하려는 생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밝힌 것과 관련해 "더 이상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지 말고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후 청와대 5당 대표회담 등 5당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적폐연대에 대한 이3당과 개혁진영과 시민사회의 저항이 극심하고 단식과 농성과 집회가 계속되자 이를 회피하려는 꿈수로 민주당은 또다시 1월 정개특위로 떠넘기며 결단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며 "수개월간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덧붙였다.

지역광고·이벤트·정문·지문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